

2016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④	5	③
6	②	7	⑤	8	①	9	②	10	①
11	②	12	①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②
21	⑤	22	①	23	⑤	24	③	25	①
26	⑤	27	①	28	②	29	③	30	③
31	②	32	③	33	⑤	34	②	35	③
36	①	37	⑤	38	②	39	⑤	40	④
41	③	42	③	43	④	44	④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토의 참가자의 역할을 파악한다.

이 토의 지문에서 '학생회장'은 안건을 제시하고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등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견 대립의 조정은 일반적인 토의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 토의에서 '문화부장'과 '총무부장'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있으나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회장'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발언에서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에서 토의 안건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회장'의 네 번째 발언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토의 안건을 예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회장'의 세 번째 발언에서 '총무부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토의 참가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총무부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들이 수익성 프로그램에 치중한 것을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발언을 통해 동아리들이 수익금 전액을 동아리 활동비로 승인 받아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익금 전액을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본 것은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공동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② '문화부장'의 첫 번째 발언에서 준비 기간의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문화부장'의 두 번째 발언에서 준비 기간 확보, 기획팀 중심의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⑤ '총무부장'의 두 번째 발언에서 판매 행사팀의 수익 사업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토의 흐름에 맞는 내용을 발언한다.

'문화부장'은 [가] 뒤에 이어지는 발언에서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 맥락을 고려하면 [가]에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만 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보기>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총무부장'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장에서 기부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언급했으나, 둘째 문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달리 기부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② 첫째 문장에서 판매 행사팀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언급했으나, 둘째 문장에서는 이 토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동아리들 간 의견 조율에 대해 언급했다. ③ 첫째 문

장에서 판매 행사팀 운영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고, 둘째 문장에서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⑤ 첫째 문장에서 판매 행사팀 운영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고, 둘째 문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언급했다.

4. [출제의도] 발표 전 준비 과정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그림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말 사용자의 증가 추세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째 단락에서 웃는 얼굴 그림말을 시각 자료로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넷째 단락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그림말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그림말 사용 횟수, 언어로 표현하려고 고민했던 경험 등을 질문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⑤ 셋째 단락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림말 사용과 관련해 일어난 일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임을 확인하며 그림말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판단한다.

'학생 3'은 발표를 들은 후 보인 반응에서 이전에 그림말만으로 쉽게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에 문제의식을 지닌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발표를 들으며 그 견해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발표를 들은 후 '학생 3'이 지닌 견해가 수정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그림말과 관련지어 신문 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들었다. ② '학생 2'는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품었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며 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학생 4'는 발표자가 그림말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했으므로 발표 내용의 공정성을 평가하며 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말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높여서'와 같이 강세를 두어 발표했다. '학생 5'는 어조에 강세를 두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웠다고 하고 있으므로 반언어적 표현의 효과에 주목하며 들었다고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학생은 주말에 공원으로 야외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는 기상 정보를 확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구했다는 ㉓는 반영이 되어 있다. 또한 학생의 초고에서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중국에서 날아온 것과 국내 발생원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㉔도 반영되었다.

[오답풀이] 학생의 초고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부분과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㉒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으로 과도한 난방을 자제하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안을 비교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㉑는 반영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학생의 초고에서 넷째 단락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출 시 특수 마스크 착용과 초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식품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청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넷째 단락에서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안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㉑와 같은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둘째 단락에서 초미세먼지의 개념을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라고 모호하게 정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가)-1을 활용하여 '매우 작은 먼지'를 '크기가 2.5µm 이하인 매우 작은 먼지'로 구체화해야 한다. ② 셋째 단락에서 초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해 배출된 공장 매연'만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가)-2를 활용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나 '난방·발전' 등으로 인한 원인 등을 추가해야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에 부합한다. ③ 첫째 단락에서 학생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심각하다고 서술했지만, 그 정도가 제시되지 않아 모호하다. 따라서 <보기>의 (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해외 도시들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된다. ④ 둘째 단락에서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다)를 활용하여 질병의 내용을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안구 질환' 등으로 구체화해야 조기 사망률 증가의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

①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 캠페인 문구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우리 몸과 환경을 해치는'이란 표현에서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을 멈춘 당신'이라는 표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멈출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날 선 창'과 '방패'라는 비유법을 활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④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멈출 것을 유도했지만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자동차 공회전을 멈출 것을 유도하였으며 비유법을 사용했지만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내용이 없다.

9.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 글은 대의원 회의 결과를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학생자치법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글을 쓴 학생회장은 먼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을 학생회 임원이 겸임하지 않고 별도 선출하기로 했다는 것과, 학생자치법정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 구성과 관련한 안내 사항에서는 모집 인원과 자격 조건, 서류 접수, 면접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학생들에게 안내 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오답풀이] ① 회의 내용을 안내하는 글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행위이지만 주장하는 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독자의 비판적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③ 필자가 속한 학생회 임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친교적 관계 형성의 목적을 가진 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안내하는 글인 만큼 필자의 반성적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주관적 정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대의원 회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청각 매체를 활용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바르게 고친다.

㉠의 '개최되었습니다'는 이중 피동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를 '개최되었습니다'로 수정해도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 '회의를'과 호응하지 않는다. '개최하였습니다'로 수정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오답풀이] ㉡ ㉢의 '겸임'은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또는 그 직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맡아'를 삭제해야 의미 중복을 피할 수 있다. ㉢ ㉣은 학생회 임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언급한 것이며 안내문의 학생자치활동 구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게'라는 조사를 덧붙여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 '병치'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을 의미하는 '병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이해한다.

'물약'의 표준 발음은 [물락]이다. 이렇게 발음되는 데는 ㉠이 적용된다.

[오답풀이] ㉡ '색연필'은 ㉠을 적용하여 '연'을 [년]으로 발음하고 ㉢을 적용하여 '색'을 [생]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 '잡는다'는 ㉠을 적용하여 [잡는다]로 발음하는 것이다. ㉣ '강릉'은 ㉢을 적용하여 [강릉]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 '물난리'의 '난'은 앞뒤에 'ㄹ'이 이어지므로 ㉠을 적용하여 [물랄리]로 발음하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접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보기>는 '-음'과 결합하여 파생 명사가 되는 경우와 용언의 명사형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생 명사는 어근에 명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든 것이므로 사전에 등재된다. ㉠의 '수줍음'은 어근 '수줍-'에 접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관형어 '그녀의'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의 표제어이다.

[오답풀이] ㉡ '없음'은 '없다'의 어간 '없-'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 '먹음'은 '먹다'의 어간 '먹-'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 '맑음'은 '맑다'의 어간 '맑-'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 '걸음'은 '걷다'의 어간 '걷-'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어미의 특성을 파악한다.

연결 어미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선어말 어미 '-았/았-'이나 '-겠-'과는 결합할 수 없으나, 선어말 어미 '-(으)시-'와는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시려고'는 '가-+-시-+-려고', '가셨으려고'는 '가-+-시-+-았-+-으려고', '가시겠으려고'는 '가-+-시-+-겠-+-으려고'로 분석된다. 따라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고'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앞 절의 주어('영희가')와 뒤 절의 주어('철호가')가 같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동사 어간('하-') 뒤에는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건강하-') 뒤에는 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자료를 탐구한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연적'은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

연적'이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인 '-이다'와 결합하고 있는 것에서도 '우연적'이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우연하다'의 용례로 형용사 '우연하다'가 관형사형으로 바뀌어 명사 '계기'를 꾸며 준 '우연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국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한다.

(가)는 '지연이의 꿈은'과 '되고 싶다'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문장이다. 즉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다. (나)는 '이용하면서' 앞에 '자연율'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즉 필요한 문장 성분이 누락된 문장이다. (다)는 '형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중의적 문장이다.

16~18] (기술) 변용규, 「디지털 시스템 공학」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에 흔히 쓰이는 논리 게이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논리 게이트는 디지털 회로의 기본 요소로서 하나 이상의 입력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 값을 얻는다. 디지털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나눌 수 있다.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의 입력 값들만 이용하여 출력 값을 결정한다. 반면 순차 논리 회로는 과거의 출력 값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순차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달리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로는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있다. 논리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은 전기적 신호가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에서 입력 값이 모두 0이면 각각의 출력 값은 NOT 게이트는 1, AND 게이트는 0, OR 게이트는 0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셋째 단락에 진술되어 있다. NOT 게이트는 출력 값이 입력 값과 반대가 되도록 변환하기 때문에 입력 값이 0이면 출력 값은 1이다.

[오답풀이] ㉠ 어떤 논리 게이트라도 출력 값은 0과 1, 둘 중 하나이다. 첫째 단락을 보면 디지털 장치는 신호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의 정보를 구분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한 전압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2진수로 처리하여 디지털 회로를 설계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 넷째 단락 첫 문장을 보면 '논리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은 전기적 신호가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 셋째 단락을 보면 논리 게이트들의 입력 가능한 조합의 수는 2의 거듭제곱을 따른다고 진술되어 있다. 즉 입력 단자가 2개면 입력 가능 조합은 4개, 입력 단자가 3개면 입력 가능 조합은 8개가 된다. ㉤ 셋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디지털 회로의 설계는 다양한 논리 게이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진술되어 있다.

17.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제시된 개념을 이해한다.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기계가 만 원권의 개수를 세어 총액을 나타내는 것은 이전 상태의 출력 값과 현재의 값을 논리 연산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상태로 변화할 때까지 현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순차 논리 회로와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같다.

[오답풀이] ㉠, ㉡, ㉢, ㉣은 모두 조합 논리 회로와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같다. 현재의 입력 값(자동차의 문이 열리면, 현관에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이 다가야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들만 이용하여 출력 값(경고음이 울리는, 전등이 켜지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되지 않는 놀이 기구)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의 특징은 넷째 단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AND 게이트의 출력 값이 다시 NOT 게이트로 입력되어 최종 출력 파형은 바로 ㉠이 된다. 왜냐하면 NOT 게이트는 출력 값이 입력 값과 반대가 되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 ㉢, ㉣, ㉤은 AND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9~22] (인문) 이동철 외, 「21세기의 동양 철학」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를 인용해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노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노자는 상반된 것의 공존을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명(名)'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노자에 따르면, 하나의 '명'이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명'은 그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자의 관점을 취하면, 유가에서 '인(仁), 의(義), 예(禮), 충(忠), 효(孝)' 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할 수 있다. '인, 의, 예, 충, 효' 등은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자는 이 이념들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해 결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았다.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 의, 예, 충, 효' 등을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는 혼란했던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노자에 따르면,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이 대상에 부여되어 그 대상이 지닌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노자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오답풀이] ㉠ 첫째 단락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에 '상반된 것의 공존'에 관한 노자의 생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넷째 단락에서 "법령이 더욱 엄하게 되면 도덕도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 다섯 번째 단락에서 문명 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념의 산물로 보았다. ㉣ 셋째 단락에서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되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대비되는 관점을 파악해 이해한다.

노자는 '예'와 같은 이념이 그 반대되는 것을 동반해 사회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예'와 같은 것을 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즉 노자는 '예'와 같은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가 '예'와 같은 이념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자는 '예'와 같은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와 같은 이념의 실현의 조건으로 이념을 지향해 초래되는 문제점들의 극복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풀이] ㉠ 노자는 '명'이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

준으로 '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명'을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③ 노자는 '예'에 의해 오히려 사회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기>에 따르면, 공자는 '예'에 의해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노자는 '명'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보기>를 보면, 노자와 달리 공자는 '명'에 부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⑤ 노자는 당대 사회를 탐욕과 이기심이 넘치는 사회로 보았다. 노자는 '명'이 이러한 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자가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관심을 기울였음을 나타낸다. <보기>를 보면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자가 사회 혼란을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 준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은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이다. 이 사회는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이지 않는, 즉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세계이다. 그리고 ㉠은 평화로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특정 체계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로운 안정된 삶이 유지되는 사회임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노자에 의하면, ㉠은 '명'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이다. ② 노자에 따르면, '명'의 강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③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사회는 ㉠의 특징이 아니다. ④ ㉠은 이념의 실현이 추구되는 사회가 아니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관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음'은 '관통'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23~26] (사회) 김봉호, 「미시 경제학」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여 총수입을 극대화하는지 설명하는 글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한다. 이때 판매자가 단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총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을 시도한다.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을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간에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가격 차별의 유형과 각 유형의 가격 차별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가격 차별의 유형에는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이 있으며, 1급 가격 차별과 2급 가격 차별은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3급 가격 차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구분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이 글은 다섯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가격 차별의 개념과 성립 조건이, 둘째 단락에서는 가격 차별의 유형과 1급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이, 셋째 단락에서는 2급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예시가, 넷째 단락에서는 3급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예시가, 다섯째 단락에서는 독점 시장의 문제점과 가격 차별의 경제적 효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넷째 단락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격이 1만큼 오르거나 내렸을 때 상품의 판매량이 얼마만큼 덜 팔리고 더 팔리느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상품 특성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가격 차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둘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가격 차별의 유형을 1~3급 가격 차별로 제시하고 있다. ③ 첫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이후에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에 제시된 ○○시의 지하철 사례는 가격 차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가격 차별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지하철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로 시장(구매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지하철 운영의 가격 차별 유형은 3급 가격 차별로 볼 수 있다. 2급 가격 차별은 상품의 수량을 구간 별로 나누는 것이며, 3급 가격 차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어른은 어린이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소득이 높은 어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린이 그룹은 작은 가격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운영이 1,000원이 오른다면 어른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지만 어린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져 지하철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완전 가격 차별인 1급 가격 차별은 모든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가정하므로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송 원가를 고려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하철 운영의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어른과 어린이의 운임을 차별하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로 시장을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어린이의 승차권을 어른 승차권으로 되팔 수 있다면 차익을 노리는 구매자들 때문에 가격 차별이 결국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④ 3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구별할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금의 변동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이다. ⑤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요금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그래프는 이 글에 제시된 2급 가격 차별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1개는 1,000원에 팔지만 5개는 4,700원, 10개는 8,000원에 판매한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에 차별을 두어 구매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 차별이 가능한 이유는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매자가 가격 구간을 늘려 판매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 구간을 세 구간에서 다섯 구간으로 늘리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답풀이] ② 2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수량을 구간별로 나누고 있다. 많이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조금 더 싼 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③ 1개를 구매할 때에는 1,000원을 받지만 10개를 구매할 때에는 8,000원을 받아 개당 800원의 가격을 받는다. ④ 800원으로 16개의 상품을 판매할 때의 총수입은 800원×1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된다. 하지만 가격 차별을 하여 16개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800원×16개의 면적보다 넓어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의 앞 문장에서 독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생산량을 적게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생산량이 적어지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통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늘어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상품이 단일 가격으로 책정된다면 비싸서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격이 낮아서 많이 팔리던 상품의 판매량은 상관이 없다.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것이다. ② 가격 차별이 일어나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④ ㉠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7~30] (과학) 최준호 외, 「브루커의 생명 과학」

이 글은 식물 세포의 신장에 관여하는 옥신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다윈은 어린 식물이 빛을 향해 휘어지는 것을 보고 식물의 특정 부위가 빛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윈의 실험 이후 보이센엔센은 식물 줄기의 맨 윗부분에서 특정 물질이 뿌리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벤트는 이 물질을 '옥신'이라고 이름 지었다. 옥신은 식물의 줄기 맨 윗부분에 있는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옥신은 뿌리 쪽을 향해 흘러가면서 식물 세포를 신장시킨다. 대표적인 옥신인 IAA는 세포질로 흘러들어 H⁺을 이동시키는 H⁺ 펌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펌프의 작용으로 H⁺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벽으로 수송된다. 수송된 H⁺은 췌기 모양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가 세포벽에 있는 섬유소 분자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든다. 세포벽의 섬유소들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삼투 현상으로 인해 세포질로 물이 유입되어 식물 세포가 신장하게 된다. 또한 옥신은 식물의 굴광성에 작용한다. 옥신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세포 안에서, 위에서 기술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빛의 반대 방향에 있는 세포들이 신장하여 빛의 방향으로 식물이 휘어지게 된다.

2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의 첫째 단락에는 연구 과정을 통해 옥신의 발견과 옥신이라는 이름을 지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단락에는 대표적 옥신인 IAA가 두 가지 형태로 세포질로 유입되는 내용을 설명했다.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은 H⁺을 세포벽으로 수송하는 데 작용한다. pH 농도가 감소하면서 세포벽의 섬유소 간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질로 물이 유입되어 식물 세포가 신장되는 내용을 셋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다. 넷째 단락에는 굴광성과 세포질 밖으로 나온 옥신이 뿌리를 향해 흘러가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옥신이 식물 세포에 작용하는 원리를 과정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풀이] ② 빛의 영향으로 옥신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옥신의 기능을 설명할 뿐, 조건에 따른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식물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옥신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⑤ 옥신은 식물의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세포질에서 옥신의 영향으로 활성화된 H⁺ 펌프는 세포질에서 세포벽으로 H⁺을 수송한다. 수송된 H⁺은 썩기 모양의 효소를 활성화하여 세포벽의 섬유소 간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데, 그 후 삼투 현상이 발생해 세포질로 물이 유입되면 세포질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삼투 현상 때문에 세포질로 물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PIN 단백질은 세포질에 이온화되어 있는 옥신이 세포벽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③ 세포벽에 있는 썩기 모양의 효소는 세포벽에서 섬유소 간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데 작용한다. ④ 세포질의 H⁺은 H⁺ 펌프가 작용하여 세포벽으로 이동해 세포벽의 pH를 감소시킨다. ⑤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은 확산을 통해 세포질로 유입될 수 없기 때문에 옥신 유입 수송체를 이용한다고 글에 설명되어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는 다윈이 어린 식물을 이용하여 진행한 굴광성 실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옥신의 이동과 작용 과정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ㄴ의 옥신은 고깔이 있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ㄷ에서는 옥신이 뿌리 쪽으로 흐르면서 빛의 반대 방향으로도 흐르기 때문에 굴광성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ㄱ은 분열 조직이 있는 어린 식물의 끝부분을 잘라낸 것이므로 절단면에서는 옥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② ㄱ은 옥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ㄴ은 빛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굴광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ㄴ은 빛이 통하지 않는 가리개 때문에 어린 식물의 끝부분에서 빛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중간 부분을 ㄷ의 가리개로 가린다고 해서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⑤ ㄷ과 ㄷ의 굴광성은 휘어진 부분에서 빛의 반대 방향의 세포가 더 신장되어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분포하다’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따라서 ㉠의 ‘퍼져 있다’는 ‘분포하다’로 바꿀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포하다’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② ‘배포하다’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④ ‘살포하다’는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⑤ ‘유포하다’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31 ~ 33] (현대소설) 김동리, 「화랑의 후에」

작가 김동리는 1935년 중앙일보 신춘 현상 모집으로 등단했는데, 단편 소설 「화랑의 후에」가 바로 그 등단작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몰락해 버린 양반 계층의 후예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역과 시경을 읊조리거나 문벌과 족보를 들먹이는 등 봉건적 의식을 고수하고,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전근대적 인물 ‘황 진사’의 말과 행동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의 관찰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사한 일화를 몇 개의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희극적인 소재와 행동을 통해 ‘황 진사’를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의 숙부와 숙모가 젊은 과부를 황 진사에게 중매하려고 하자 ‘황 진사’가 이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은 양반의 자손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 광화문통에서 ‘나’와 우연히 만난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발견했다고 자랑하는 부분, ‘황 진사’가 약장사와 두꺼비 기름을 팔다가 순사에게 끌려가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A]는, 숙부와 숙모가 황 진사에게 과부를 중매하려고 하나 자신은 양반의 자손이므로 과부에게 장가를 들 수 없다며 노여워하고 있는 부분으로,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 부분에는 회상 장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회상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1인칭 관찰자 ‘나’의 관점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보았다’, ‘넌쳤다’, ‘판이었다’ 등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A]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공간은 숙부의 집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감 있는 묘사를 찾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이 글의 ‘황 진사’는 몰락한 양반 계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가문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조상의 명예에서 위안을 찾는 등 과거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 ‘황 진사’는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마치 약장사와는 관계없는 존재인 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황 진사’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며 중매도 거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의 허위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황 진사’가 과부를 중매한 숙부와 숙모에게 분개하는 것은 ‘황후암 육대 직손’인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④ ‘황 진사’가 우연히 만난 ‘나’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의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황 진사’가 순사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면서도 점잖은 양반의 걸음걸이를 고수하는 것은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은 약을 팔기 위해 약장사가 한 허위 또는 과장의 말이다. 말의 표면적 내용은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요약한 것이나, 정황이나 맥락 등을 종합해 보면 진솔하게 제시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황 진사’가 젊고 돈 있는 규수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음을 ㉠과 같은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숙모의 말로 인해 규수가 과부임을 알게 된 ‘황 진사’의 분개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 분위기를 ㉡의 시계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황 진사’는 ㉢에서 조상의 이름을 거명하며 양반 가문에서 과부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우연히 만난 ‘황 진사’가 형무소에 수감된 숙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엉뚱하게도 ‘황 진사’는 자신이 화랑의 후예라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나’는 ㉣처럼 반응한 것이다.

[34 ~ 3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최고운전」은 16세기 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까지의 소설이 대개 사대부적 취향에 의거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에는 민중적 상상력과 감수성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신

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꾸며 영웅화하고 있는데, 권위, 국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에 맞서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주로 문재(文才)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것인데,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중국의 황제를 굴복시키는 내용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금돼지 설화, 기아(棄兒) 설화, 수수께끼 설화 등 여러 가지 설화를 수용하여 내용을 구성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다가 최치원이 섬 위에서 승려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곁에서 선녀 수십 명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보고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이것은 기이한 상황을 목격하고 최치원이 비범한 인물이라 여겨서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이지만, 베트남 사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사상에 회의론을 품어 보인 행동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소환하여 질책하던 황제가 최치원의 도술을 보고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최치원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은 <보기>에 나온 빈공과 급제와, 황소의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보기>의 ‘토황소격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과 연결할 수 있다. ④ 최치원이 대전 앞에서 지은 시를 한 쌍의 용이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천상계에서도 최치원의 문재(文才)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당나라의 여러 대신들은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라는 생각을 품고 최치원을 모함했다. 이것은 반동 인물들이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다.

35. [출제의도] 인물들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한다.

사자는 최치원의 귀양지를 1차 방문한 후 황제에게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방문 후에는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의 전달일 뿐 자신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황제는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혼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자가 2차 방문하였을 때 최치원은 ‘너는 뭐 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라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자가 1차 방문하였을 때는 일부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⑤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은 상대방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파죽지세’이다.

[오답풀이]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의 황소의 반란은 내우(內憂)에 해당하지 외환(外患)은 아니다. ⑤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은 당나라 황제가 신라가 자신의 땅이고, 신라의 왕 또한 자신의 신하라면서 최치원에게 따지듯이 묻자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一)자를 긋고 그 위에 펼쳐 뛰어올라 앉은 것이다. 이것은 당나라 황제의 오만함에 맞서 최치원이 도술을 부려 공중에 앉고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과시하며 당나라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최치원이 황제와 타협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로 볼 때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당나라 황제의 횡포나 신라를 소국이라 여기는 당나라 대신들의 생각으로 볼 때, 당나라의 국력이 신라보다 우월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38~40] (현대시) 김소월, 「접동새」 / 배한봉, 「우포늪 왓새」

(가) 김소월, 「접동새」
김소월의 '접동새'는 접동새 설화를 수용하여 현대시의 형식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작품으로, 접동새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진두강 가에 열 남매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를 맞아들였다. 계모는 매우 포악하여 전처에게서 난 아이들을 학대했다. 열 남매 중 맏이인 소녀는 혼기가 되어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는데, 도령의 집은 매우 부유해서 소녀의 집에 많은 예물을 보냈다. 이를 시기한 계모는 소녀를 죽였다. 소녀의 혼은 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접동새가 된 소녀는 계모를 무서워하여 남들이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아홉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피 울었다. 시인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담고 있는 설화를 통해, 당시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심정을 절절한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드러난 시적 방법은 우리 민족 전체가 공유하던 구비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민족적 동일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시적 주체의 감정을 보편적인 정서로 일반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전통적 율격을 변주한 개성적인 리듬, 행과 연의 입체적인 구분과 정제된 시적 구조, 애상적 어조와 향토색 짙은 시어 등을 통해 한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 배한봉, 「우포늪 왓새」
배한봉의 '우포늪 왓새'는 경남 창녕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습지 '우포늪'을 중심으로, 자연과 생명의 가치에 주목한 시인의 시 세계를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늪은 고여 있는 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온갖 생명체의 쉼터가 되는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한 소리꾼이 평생 추구한 득음의 경지를 우포늪의 왓새 울음소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혼의 경지를 동일시하여 드러내고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접동새'를 중심으로, (나)는 '우포늪'의 '왓새'를 중심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어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에서는 '접동/접동/아우래비 접동', '웁니다' 등의 시어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신명 한 가락', '한 대목 절창', '왓새 울음'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시적 정서가 환기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반어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접동새가 누나라고 가정할 수 있고 (나)에서는 왓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소리꾼의 득음을 떠올릴 수 있지만, 화자가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 모두 대구적 표현을 찾기 어렵다. ⑤ (가)에서 접동새 울

음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도 왓새와 소리꾼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화자와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보기>는 접동새 설화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형식과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에 울고 있는 접동새는 동생들을 잊지 못하고 찾아온 누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오래동생'의 태도는 시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뇌와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시행 배열과 '아우래비 접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1연에서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2연에서는 '누나는' '웁니다'라고 표현하여 '접동새'와 '누나'를 동일시하고 있다. ③ 3연까지의 '누나'가 4연에서는 '우리 누나'로 변주되며 민족이 지닌 슬픔의 정서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④ 전통적 율격으로 이별의 정한을 부각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적용하여 감상한다.

'양과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왓새들이 '일제히 깃을 치며' 날아가는 장면은, 소리꾼이 지닌 득음의 경지와 상통하는 것이므로 소리꾼의 회한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소리꾼과 왓새를 동일시하며 시상을 떠올리고 있다. ② '그 사내'가 찾던 득음의 예술적 경지는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이 번지는 것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소리꾼 사내가 평생 찾아 헤맨 소리는 우포늪 가까이 있는 '맑은 가락'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왓새들의 완창은 소리꾼의 예술적 경지와 통하는 것으로,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게 하는 생명력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43] (고전시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 권섭, 「매화」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이 작품은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소재로 하여 당대 현실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두꺼비를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비굴해지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중장에서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종장에서 두꺼비의 자기 합리화를 보여줘 해학성을 부각하는 기법이 인상적이다.

(나) 권섭, 「매화」
조선 후기의 문인인 권섭이 지은 총 4수의 연시조이다. 권섭은 젊은 시절 기사환국(숙종 15년 소의 장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문제로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사건)을 겪으며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문필을 택해 많은 시가를 창작했다. 「매화」는 권섭이 평소 고결한 속성을 지녔다고 생각한 매화를 소재로 삼아 매화의 지조를 예찬하고, 매화를 완상(玩賞)하는 흥취를 드러낸 작품이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의 중장에서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두꺼비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경우도 매화를 '너'라고 지칭하고, '벗님'으로 여기면서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 어디에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

러내고 있으나, (가)는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작품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파악한다.

(가)의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중장은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드러낸 행동(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백송골'이 우위에 놓인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② (나)의 중장에 '백송골'과 '두터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④, ⑤ (나)의 중장은 두꺼비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는 의지나 반성적 성찰로 볼 수는 없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한 가지 꺾어 내어'는 화자가 입에 매화의 가지를 꺾어서 보내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나)에서 선비의 지조를 인정하지 않는 시류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일야'는 '하룻밤', '밤사이'를 뜻하며 매화가 핀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풍운'이 풍류와 운치를 뜻하므로, 풍류와 운치가 끝이 없다는 것은 매화를 바라보며 화자가 흥취를 느끼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세한'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세한 불개'는 추운 계절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매화의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⑤ '나와 늑자 하노라'는 화자가 매화를 사랑하여 매화를 항상 곁에 두고 지내고 싶은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45] (극) 김의경, 「길 떠나는 가족」

「길 떠나는 가족」은 화가 이중섭(1916~1956)의 예술적 생애를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으로, 1991년 이윤택이 연출하여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하였다. 이 작품은 이중섭의 대표적인 그림인 '길 떠나는 가족'을 도입부와 종결부에 배치한 수미 상관 구조를 띠고 있다. 이중섭의 그림 속 소, 나비, 새 등을 형상화한 오브제들이 배우들의 움직임에 통해 그림으로 몽쳐지는 장면은 이 연극의 백미이다. 또 이중섭의 미술 세계를 밀그림처럼 깔고 있는 배경 활용, 전통적인 노래와 토속적인 춤 삽입 등 다양한 연극적 장치들이 활용되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임 교사와 중섭의 대화에서 임 교사는 현실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예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거나 그러한 예술이 그르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임 교사는 중섭에게 습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술가는 상상력을 토대로 예술 속에 현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동경 유학을 권유하는 등 중섭을 예술의 길로 적극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중섭은 임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 그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②, ③ 배우 1(신문 기자 역)은 이중섭의 사망 사실, 사망 시점과 그 원인, 장례 준비 현황 등을 송고하고 있고, 배우 2(시인 역)는 이중섭의 삶을 표현하는 시를 낭송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연출의 의도와 관련지어 감상한다.

이중섭이 소를 그리면서 마치 소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한 장면을 통해 이중섭과 소, 즉 인간과 자연이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무관심한 이중섭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